

원/달러 환율 상승, 대응법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하락. 지난주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절하 폭 확대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 있음. 스테이블코인 활성화와 양호한 경제지표에 기인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급에 부담 요인.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에 관심

외국인 수급에 반하지 말 것

최근 시장의 화두는 환율이다.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로 방향을 바꾸면서 국가별로 통화 가치가 떨어졌다. 그중에서 원화는 타국 대비 절하 폭이 컸다. 지난주에만 원/달러 환율은 1.2%가량 올랐다. G20 회원국 통화 중에서 아르헨티나 페소를 제외하면 가장 큰 폭으로 통화 가치가 흔들렸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는 달러화 가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달러인덱스는 아래로 방향을 잡아왔으나, 최근 흐름이 달라졌다. 선물시장에서 달러화 숏 포지션도 축소되고 있다. 당분간 달러가 약세를 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법안을 완비하며 달러화 가치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해당 흐름이 갑자기 바뀔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호했던 미국 경제지표도 달러화 강세를 지지한다. 지난주 중요도가 높은 지표가 발표됐다. 소비자물가와 소매판매인데, 대부분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레이션 압력과 직결되는 소비자물가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개선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약해졌다. 월리 연준 이사를 포함한 소수 위원의 금리 인하 주장이 힘을 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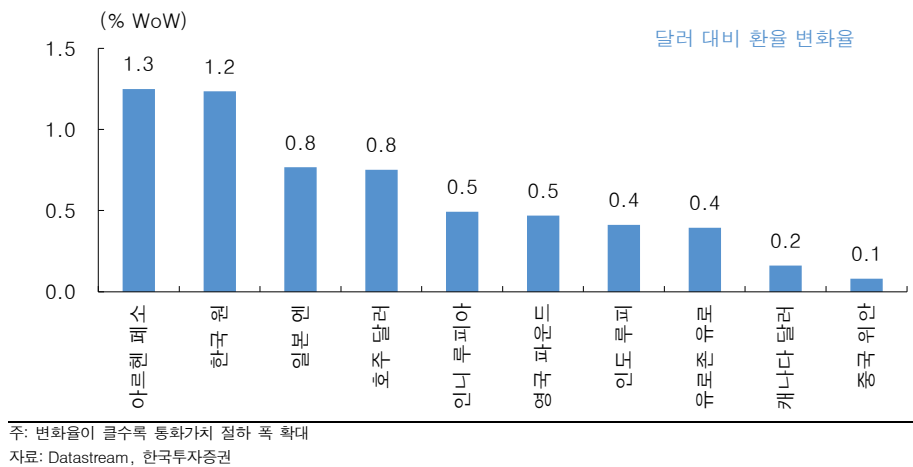
달러 강세에 의한 원/달러 환율 상승은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된다. 외국인 수급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외국인 매수세는 약해진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후반에 위치하고 방향성이 위를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순매도 압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유의미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다.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업종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응법은 투자자금의 응집력이 강한 외국인 매매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 환율이 오르고 대외자금이 유출돼도 모든 종목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익 모멘텀이 강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존재한다면 외국인 매수세는 선별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종목을 매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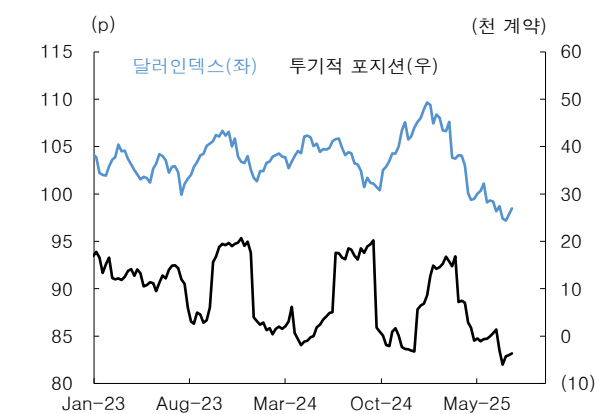
김대준

daejun.kim@koreainvestment.com

[그림 1] 7월 3주: 국가별 달러 대비 환율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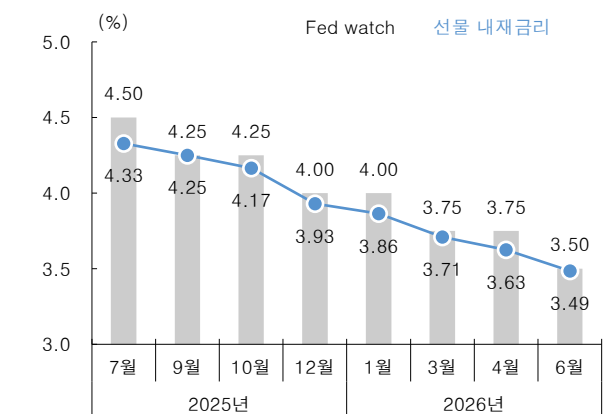


[그림 2] 달러인덱스와 투기적 포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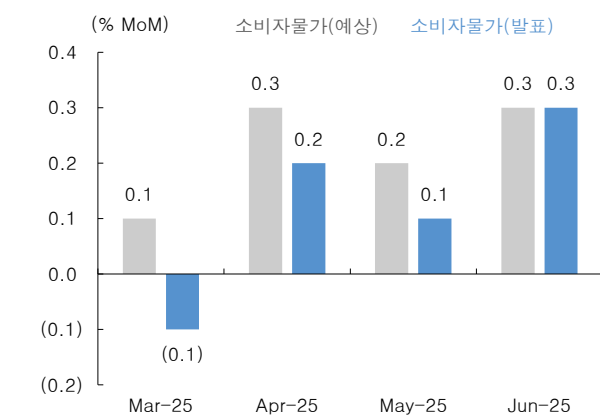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3] 미국 예상금리: Fed watch & 선물 내재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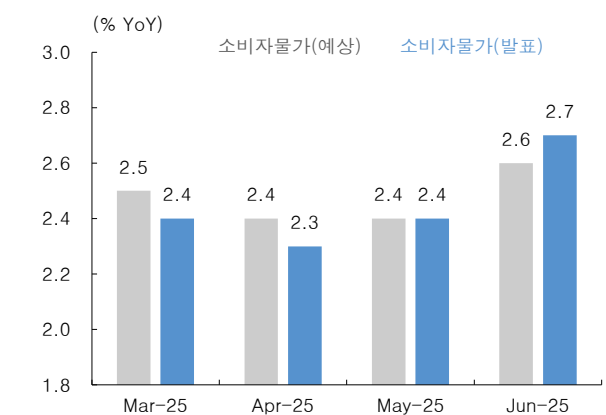


[그림 4] 미국 소비자물가: 전월 대비 수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5] 미국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 대비 수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Month	소매 판매 (예상) (% MoM)	소매 판매 (발표) (% MoM)
Mar-25	1.4	1.5
Apr-25	0.0	(0.1)
May-25	(0.6)	(0.9)
Jun-25	0.1	0.6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자전거 제외 자동차 판매(%)

기간	예상 (예상)	발표 (발표)
3월 말	0.4	0.6
4월 말	0.3	0.0
5월 말	0.2	(0.2)
6월 말	0.3	0.5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원/달러 환율 비중

월소득 구간 (원)	비중 (%)
1000원 미만	9.1
1,000 ~ 1,100원	17.9
1,100 ~ 1,200원	44.3
1,200 ~ 1,300원	14.0
1,300 ~ 1,400원	11.7
1,400 ~ 1,500원	2.8
1,500원 이상	0.2

주: 2000. 1. 4. ~ 2025. 7. 18.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Category	외국인 평균 순매수 (좌) (십억 원)	평균 주가수익률 (우) (%)
환율 하락	92.9	0.6
환율 보합	137.5	0.3
환율 상승	37.8	0.1
합계	21.9	0.1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산업	강도 (%)
호텔/레저	105
하드웨어	50
반도체	45
기계	35
유동	35
방산	30
화장품	30
에너지	15
디스플레이	15
조선	15
지주	15
유틸리티	10
건강관리	5
건설	-5
운송	-5
화학	-10
상사	-15
증권	-20
의료	-25
비철	-30
음식료	-35
소프트웨어	-40
자동차	-45
미디어/교육	-50
건강	-60
은행	-70
통신	-80
가전	-90
모험	-110

주: 순매수 강도 = 5일 누적 순매수/20일 평균 거래대금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표 1> 원/달러 환율 상승 국면: 관심 종목 7선

(단위: 십억원, 원, % WoW, 배)

코드	종목명	시가총액(7/18)	수정주기(7/18)	외국인 주간 순매수	12MF EPS 증가율	FY1 PER	FY1 PBR
A005930	삼성전자	397,208	67,100	1,482.9	0.0	15.6	1.1
A039490	키움증권	5,991	230,000	28.6	1.0	6.6	1.0
A032640	LG유플러스	6,545	14,990	6.6	2.6	10.2	0.7
A036460	한국가스공사	4,066	44,050	6.3	0.9	4.7	0.3
A004020	현대제철	4,644	34,800	3.9	3.6	38.3	0.2
A097520	엠씨넥스	511	28,450	1.7	0.4	8.8	1.1
A139480	이마트	2,633	95,400	0.9	0.1	13.1	0.2

주: 시가총액 3,000억 원 이상인 코스피 종목 대상

자료: Quantwise,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